

AI 확산세...광주·전남 육용오리 일제검사

농축산부 11일까지...전남, 내년 2월까지 기르던 오리 모두 출하 후 새로 입식키로

지난 9월 14일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기 최초 발생 후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광주·전남의 모든 육용 오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전남의 모든 육용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올인-올아웃(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이전에 기르던 육용 오리의 AI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일 이전 기르던 육용오리를 모두 출하한 이후 새 새끼 오리를 기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일 농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최초 발생 후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로 모두 14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농가 일제검사 등을 통해 AI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철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4건은 모두 농가 신고가 아닌 출하 전 검사나 역학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영암 6건, 나주·강진·담양 각 2건, 광주 2건(북구 1·광산구 1) 등이다. 발생 장소는 오리농장, 전통시장, 식당, 중간상인 계류장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영암 소재 육

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서 보호지역으로 설정한 반경 3km 이내 지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I 6건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I 의심축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 19만6122마리(닭 155·오리 19만5967)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초 발생 원인은 가금증개상인 계류장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곳은 증개상인을 연결고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영암 오리 농가에서 AI 발생 이후 보호지역 내 사육되는

차량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외에도 바이러스 외부유입이나 잔존 바이러스 재발생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으로의 AI 전파를 막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전남도 및 각 시·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광주·전남 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하는 한편 오리농가·전통시장·계류장 등 취약지역에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 소독할 예정이다.

"The Korean Student Bulletin"이라는 제목의 이 소식지는 당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북미대한인학생총연합회(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n)' 학생들이 모국에서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4면에 걸쳐 영문으로 작성된 이 소식지는 '한국에서 1919년 이후 다시 대규모 독립운동이 발생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1929년 10월 30일 전라도 나주와 광주 간 통학기차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고(현 전남여고) 여학생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한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 학생들의 항의에서 비롯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전개과정과 경찰의 차별적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사는 "1929년 12월 9일 경성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미선스쿨 5개를 비롯해 평양·부산·송도·공주·원산 등에서 이를 지지하는 동조시위의 불길기 전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미주 한인사회 적극 지지했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 당시 '북미대한인학생회 소식지' 발견

국적으로 확산됐다"며 "12월 10일과 11일 서울에서만 1만2000명의 학생이 동조시위를 벌였으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Land of the Morning Calm)'가 일본인들의 잔악한 총칼에 의해 '유혈이 낭자(bloodshed)'한 나라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하와이에서 조선 학생들의 희생을 동정을 표하고 적극 지지하는 운동이 펼쳐졌다"며 "1930년 1월 26일 뉴욕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집회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진상보고와 일제의 폭력성을 규탄했으며, 이런 내용을 세계에 알릴 홍보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자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 자료들이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축소되고 왜곡됐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재정립하는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I 재발' 농가 탓? ...보상금 축소 논란

전남도 "방역의무 등 소홀...최대 80% 감액"

영암을 비롯한 전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반복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 책임을 영세한 개별 농가의 부실한 자체 방역에 지우는 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2일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

화했다.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또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 계열농가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동제한 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액을 줄인다.

전남도는 올해 AI 발생으로 82만5000마리를 비롯해 5년간 오리·닭 6924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에 따라 640억여원의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회 AI가 반복된 농가는 14곳, 3회 반복된 농가는 3곳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방역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고소리 등 전국 4곳

드론 시범사업 지역 선정

국도교통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을 벌일 지역으로 고흥군 고소리를 비롯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 덕포리 등 4곳이 최근 선정됐다. 또, 이들 4개 지역에서 드론 시범사업을 벌일 사업자로는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15개 대표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중에는 컨소시엄도 있어 실제로는 총 31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드론을 이용해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고 등 4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현대로지스틱스는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정된 사업자들도 물품수송을 비롯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1~2년 동안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1일(현지시각)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본부, 주 유네스코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음악가 양방언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공>

"가공육·적색육 섭취 우려 수준 아니다"

식약처 "하루 평균 6g...WHO 기준 12%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의 우리 국민들 섭취량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 외국의 관련 권장 기준, WHO 발표 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평균 6.0g 수준"이라며 "매일 가공육 50g 섭취시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WHO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육의 색을 내거



나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섭취량은 2009~2010년 기준으로 WHO 1일 섭취허용량(0~0.06mg/체중 1kg)의 11.5% 수준이었다. 또 "적색육 1일 섭취량은 61.5g 수준"이라며 "WHO는 매일 100g 섭취시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국인의 적색육 섭취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초등학생) |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목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병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